

어린 소아에서 심근병증으로 발현된 신혈관성 고혈압의 치료 경험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소아과

이주훈 · 손창희 · 김영휘 · 박영서 · 박인숙

서론 : 어린 소아에서 드문 신혈관성 고혈압의 증상과 치료 경험을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 1 : 17개월 여아로 흉부 방사선 촬영 후 심장비대가 발견되었고 고혈압 동반되어 내원함. 혈압 192/113 mmHg, 크레아티닌 0.5 mg/dL였으며, 레닌 9.86 ng/mL/hr, 알도스테론 527 pg/mL로 상승되어 있었다. 심장초음파 상 확장성 심근병증 소견이었고, 혈관 조영술 상 오른쪽 신장 동맥의 미만성 협착 소견을 보였다. 캅토프릴 신스캔 상 신관류 감소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른쪽 신장의 상대 신기능은 16%이었다. 풍선 혈관 성형술 실패하였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이뇨제로 혈압이 조절되었다. 4년 추적관찰 후 크레아티닌 0.5 mg/dL, 오른쪽 상대 신기능은 19.9%, 심실 기능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.

증례 2 : 23개월 남자로 생후 3일경 심실중격 결손 진단 받았으나 건강하게 지내던 중 내원 2개월 전부터 지속되는 식욕부진, 전신 쇠약감, 체중 감소로 내원함. 혈압 190/141 mmHg, 크레아티닌 0.4 mg/dL이었으며, 레닌 17.4 ng/mL/hr, 알도스테론 160 pg/mL이었다. 심장초음파 상 확장성 심근병증 소견이었고, 혈관조영술 상 양쪽 신장 동맥의 협착과 위장간막동맥의 폐쇄 소견이 발견되었다. DTPA 신스캔 상 오른쪽 신장의 상대 신기능은 19.5%였다. 협착이 심한 오른쪽 신장 동맥에 대하여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고혈압 지속되어 Prazocin, hydralazine, minoxidil, 이뇨제 등 투여하였고 5개월 뒤 다시 풍선 혈관 성형술 시행하였으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. 이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, 칼슘통로 길항제, 이뇨제로 혈압이 조절되었다. 9년 추적관찰 후 크레아티닌 0.8 mg/dL, 오른쪽 상대 신기능 20.3%, 심실 기능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.

증례 3 : 17개월 여아로 생후 3개월경 심잡음 발견되어 심초음파 시행 후 비후성 심근병증 진단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검사 위해 입원하였다. 혈압 200/100 mmHg, 크레아티닌 0.2 mg/dL, 레닌 >20 ng/mL/hr였으며, 심장 초음파 상 비후성 심근병증 소견이었다. 혈관 조영술 상 오른쪽 신장 상극으로 가는 구역 동맥의 미만성 협착과 비틀려 있는 소견을 보였다. 캅토프릴 투여 후 수축기 혈압 150 mmHg까지 떨어졌으며 MAG3 스캔상 오른쪽 상대 신기능이 17%이었다.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로 혈압 조절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며, 8년 추적관찰 후 크레아티닌 0.6 mg/dL, 오른쪽 상대 신기능은 16%, 심실 기능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.

결론 : 어린 소아에서 신혈관성 고혈압은 심근병증으로 발현될 수 있다.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로 혈압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 사용에도 신장 기능이 악화되지 않았다.